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도민행복 ‘견인’

전남도, 내년 예산 782억 반영
탄소중립 난제 원천기술 개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순풍
서남해 관광 중심지 청사진도

전남도는 에너지 분야 사업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거 반영돼 2050 탄소중립에 대응하고 전남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대

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내년 에너지 분야 예산은 초강력 레이저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연구용역비 5억 원 등 에너지 분야에 17개 사업 782억 원이다. 주요 사업은 ▲에너지신소재산업화 플랫폼 구축 17억 원 ▲전력기자재 디지털 전환 기반구축 30억 원 ▲수전해 시스템 신뢰성 제고 기술개발 47억 원 ▲해상풍력 융복합 산업화 플랫폼 구축 15억 원 등

이다.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은 기초과학과 반도체, 신소재 등 산업 전 분야 연구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로 ‘한전공대 설립 기본 계획’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와 연계해 설치하기로 한 대형 연구시설이다. 용역비 반영으로 1조 원대에 달하는 연구시설을 전남에 유치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주요 신규사업 중 한국에너지공대가 주

관기관으로 참여하는 에너지신소재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은 미래 에너지신산업 핵심소재를 개발하고 산업 응용기술을 연구한다. 전력기자재 디지털 전환 기반구축사업은 가상환경 기반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의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세계 유일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의 신일생 모집도 시작했다. 탄소중립이라는 난제를 해결할 원천 기술을 개발할 우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혁신적

교육 방식이 벌써부터 주목받고 있다. 전남도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등 국가지정 에너지 특구와 한국에너지공대를 연계해 에너지 산·학·연 생태계를 완성, 미래 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지역 일자리 창출과 햇빛·바람 연금으로 이어진다는 대원칙 아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도 조성하고 있다.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상풍력 기자재 앵커기업 9개 사와 투자협약하고, 세계 1위 터빈사인 베스타스·씨에스 윈드와도 손을 잡았다. 현재 최상의 산업단지 배치와 연관기업 유치 육성, 주민참

여형 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해상풍력 산업 허브 조성에 힘쓰고 있다.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서남해의 새로운 관광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그리고 있다. 전남 서남해에 1천여 개의 풍력기가 설치되면 아름다운 다도해와 어우러진 국내 보기 드문 해변 경관을 자랑하는 관광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김신남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기후위기로 시작한 에너지 대전환이 전남도에 커다란 기회로 다가왔다”며 “친환경에너지 중심 혁신 생태계 조성으로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수도 전남’을 실현해 도민행복시대를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가을 안심관광지 25선’에 전남 2곳

강진 백운동 별서정원
담양 금성산성 선정

전남도는 한국관광공사의 가을 정취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가을시즌 비대면 안심관광지 25선’에 담양 금성산성과 강진 백운동 별서정원, 2개소가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가을시즌 비대면 안심관광지 25선’은 가을빛 고운 숲과 산, 바다 중 널리 알려지지 않아 안전하고 호젓하게 가을의 맛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담양 금성산성은 호남의 3대 산성 가운데 하나다. 험준한 지형 위에 7km 성벽을 둘러싸고 산의 지형과 지세를 이용해 외부에서는 성 내부를 볼 수 없게 축조된 선조의 지혜가 담긴 곳이다. 성곽에 올라서면 담양호와 추월산의 빼어난 경치와 황금빛으로 물든 금성면 평야의 풍광이 마치 한편의 수목화처럼 펼쳐진다. 가을 정취로 눈 호강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길용현 기자

강진 백운동 별서정원은 담양 소재원이 나 완도 보길도 부용동정원과 함께 호남 3대 정원으로 불린다. 조선 중기 처사 이담로가 들어와 계곡 옆 바위에 ‘백운동’이라 새기고 조영한 정원이다. 자연과 인공이 적절히 배합, 짜임새 있는 구성을 이루며, 우리 전통 원림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별서정원이다. 정원으로 가는 길은 숲속 계곡과 동백나무 등의 아름다운 수목들로 어우러져 낭만이 가득하다. 연인이나 가족 등 사랑하는 사람과 특별한 추억여행을 즐길 수 있다. 유미자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남에는 담양의 금성산성과 강진의 백운동 별서정원 이외에도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관광 명소 못지않게 풍광이 아름다운 곳이 많다”고 말했다. ‘가을시즌 비대면 안심관광지 25선’정보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에서, 그 외 전남의 안심여행 관광지 등은 ‘남도여행길잡이(www.namdokorea.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길용현 기자

도, 내년 생활임금액 1만900원

전남도는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 900원으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올해 1만 473원보다 4.1% 오른 수준으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보다 1,740원 높다. 월 급여 기준으로는 227만 8,100원으로 올해(218만 8,857원)보다 8만 9,243원 가량 증가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내년 최저임금, 지역물가상승률, 유사근로자 임금 수준 등 ‘2022년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대해 각 분야 노동 전문가의 열띤 토론 끝에 결정됐다. 어려운 지역 노동계를 위해 올해와 달리 인상 폭을 대폭 상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전남도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도가 민간에 위탁한 사업을 하는 60개 기관 등에 소속된 근로자 2,795명이다. 소상원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내년 생활임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노동자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23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폭스콘에서 열린 ‘청소년 작업장 방치자전거 재사용센터 개소식’에 참가한 이용섭 광주시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김유귀 광주에코바이크 대표, 청소년 등이 작업장을 둘러 보고 있다. /김성훈 기자

광주시, 방치자전거 재사용센터 개소

9개 기관·단체 참여
수리·보급 활성화 맞손

광주시가 방치자전거 문제 해결과 자전거 보급 활성화에 나선다. 광주시는 23일 광산구 엠코로 현장에서 ‘방치자전거 재사용센터’ 개소식과 센터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방치된 자전거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들의 진로를 지원하며, 시민 중심의 생태교통수단 활성화를 통해 2045 광주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협약식에는 광주시, 광산구, 한국

지방재정공제회, 아름다운가게 광주·목포본부, 점단전환마을네트워크, 일곡전환마을네트워크, 광주에코바이크, 바이크런,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 등 9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해 방치자전거 수거·수리·보급 활성화에 힘을 합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단체들은 협약에 따라 방치자전거 재사용센터 활성화 협력, 일자리 창출 및 청소년 진로활동 지원,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자원 재사용을 위한 자전거 판로 지원, 작업장 운영을 위한 청소년 기술습득 및 활동 지원, 청소년 작업공간 및 운영 지원 등에 나선다. 이날 문을 연 방치자전거 재사용센터는 곳곳에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수리해 아

름다운가게를 통해 판매함으로써 방치자전거 문제를 해결하고 저렴하게 자전거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청소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지원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통(수송) 부문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용섭 시장은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등으로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교통혼잡 해소, 미세먼지 감축, 개인 건강 등 1석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자전거 이용이 늘고 있다”면서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맞춰 자전거 도로 정비, 자전거 거점 스테이션 개편 등 자전거 수송 분담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애란 기자

“따뜻한 사랑이었던 당신을 기억합니다...”

하늘로 돌아가시는 길
외롭지 않도록...
당신을 닮은 따스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합니다.



호남 유일의 고품격 초대형 전문 장례식장

금호지구 서광주역 옆 100M

대표전화 (062)527-1000

장례준비 및 절차에 대해 24시간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립니다.

수확기 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검사

도, 사업장 2주 1회 의무화

전남도는 가을철 수확기 농촌 현장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농업 분야 외국인 고용사업장 종사자의 무료 진단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4일부터 전남 전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함에 따라, 6일부터 외국인 고용사업장에서 일하는 내·외국인 전원에 대해 2주 1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전남지역 총 834개소, 5,032명이 대상이다.

이런 가운데 추석 연휴 대이동에 이른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전남으로 상당수 외국인이 유입될 전망이다. 가을철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농작업은 양파·마늘·겨울배추 정식, 가을배추·배·고구마 수확 등 6개 품목이다. 이중 마늘·양파 정식과 배 수확 등은 비교적 높은 작업속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으로 9월 들어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 중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22개 시군과 합동으로 농업 분야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진단검사와 방역상황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현장 확인 시 13개국 언어로 번역한 백신접종 안내문도 직접 배부해 언어 소통 장애로 인한 문제를 차단하고 있다. 특히 여러 명이 단체로 활동하고 있어 일부는 불법체류자일 가능성도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철저한 신분보장을 원칙으로 백신 접종까지 유도하고 있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추석 연휴 기간과 수확기가 겹쳐 농촌 지역 방역상황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 때”라며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내국인도 반드시 2주에 1번씩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길용현 기자

AI 품질향상 컨설팅 참여 기업 모집

제품·서비스 개발 스타트업 대상
내달 15일까지 접수...10곳 선정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위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품질향상 컨설팅 지원 사업’ 수요기업을 10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인공지능 품질향상 컨설팅’은 광주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의 창업지원 사업이다.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국제표준에 근거해 테스트한 후 품질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테스트는 기업의 제품 개발 단계에 맞춰 인공지능 모델과 데이터를 대상으로 수행

하고, 기업별 특성을 고려해 제품 성능과 품질 개선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분야 국제공인시험 인증기관의 공인시험성적서 발행도 지원한다. 인공지능 기술 기반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전국 스타트업은 어느 곳이나 신청할 수 있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10개사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제품·서비스 품질향상 컨설팅 지원 신청에 대한 사항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애란 기자